

# 일자리사업 본격추진 지역 활기

## 노인일자리 555명, 산림바이오매스 530명 참여 ... 총 21억원 투입

어느 해보다 길게 느껴졌던 겨울이 가고 새 봄이 찾아오면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이 본격 추진돼 지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정부 보조금과 군비가 투입돼 3월부터 9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성지역에는 모두 1천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 긴 겨울 동안 움츠렸던 주민들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노인일자리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총 555명이 선발됐다. 읍·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355명이 참여하고,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와 고성군노인복지회관 등 2개 수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사

업에 200명이 투입된다.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전체 11개 사업이다. 읍면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거리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3개 사업이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은 문화재·바다·하천 지킴이사업, 건강한 노인들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돕는 노-노케어사업이다. 고성군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은 급식도우미, 보육교사돌보미, 노인학대예방사업, 행복클린세탁도우미사업 등 6개 사업이다. 채용된 어르신들은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를 원칙으로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임금은 1인당 월평균 2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 고성지역 2012년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에는 남자 377명, 여자 153명 등 총 530명이 참가하고 있다.

13억여원이 투입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은 정부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이며,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해 발생하는 간벌목을 수집해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417ha의 임야에서 약 8천m<sup>3</sup>의 산림부산물을 수집할 계획이며, 간벌목을 수집해 독거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땀감나누기 행사 및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최광호 기자

## ‘찾아가는 이동경찰서’ 호응 고성경찰서, 지난 9일 현내면서



고성경찰서(서장 홍순광)가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경찰서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윤재 생활안전교통과장 등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이동경찰서는 고성군 보건소 2명, 미용협회 회원 7명과 합동으로 지난 9일 현내면자치센터에서 이동경찰서를 운영했다.

이날 이동경찰서에서는 고소·고발 접수 및 상담, 청소년 가출·가정폭력 상담, 교통관련 민원일체 상담·처리, 노인교통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이 펼쳐졌다.

또 고성군 보건소와 미용협회의 협조를 받아 기초 건강검진과 노인성질환 무료 진료봉사, 무료미용 서비스도 해주었다.

이동경찰서는 현내면을 시작으로 거진읍,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주민을 위해 분기별 순차적으로 이동경찰서를 운영할 계획이다.

## 토성파출소 경동대 원룸촌 간담회

고성경찰서(서장 홍순광)는 최근 도내 원룸촌 일대 괴한 침입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오전 11시 토성파출소에서 경동대학교 주변 원룸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원룸촌 대표자 및 관계자 등 15명과 함께 학교폭력과 원룸 일대의 강도 및 절도 등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범죄 발생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시설 보강 등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 속초해경 낚시어선 특별단속

속초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중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해·육상에서의 집중적이고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바다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정원 초과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운항행위, 구명동의 미착용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낚시어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출항전 승선원 안전교육과 임검활동을 강화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해경관계자는 “봄철은 농무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시기이므로 낚시어선 종사자 및 승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며 “바다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해양긴급신고 122로 구조 요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영동북부지역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총 312척이며, 속초해경은 지난해 구명동의 미착용 등 위반행위 25건을 적발했다.

최광호 기자

# 아촌리 주민들 팔순 어르신 돕기 ‘한마음’

## 거주할 곳 없던 박임순 할머니 ... (구)마을회관에 새 보금자리 마련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소외된 노인과 불우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죽왕면 아촌리 주민들이 팔순 어르신의 주택을 마련해주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아촌리에 홀로 거주하는 박임순 할머니(80세)는 그동안 무료임대로 살아왔으나, 사정이 생겨서 거주할 곳이 없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아촌리(이장 함성식) 주민들은 마을 소유의 (구)마을회관 방 한 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집수리와 가전제품까지 설치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줬다.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황재철)는 가족봉사단을 통해 도배 및 장판을 지원하고, 죽왕면사무소 직원들



죽왕면변영회 회원들이 박임순 할머니에게 냉장고를 전달하고 있다.

로 구성된 죽왕면사무소 후원봉사회(면장 최영준)는 가스렌지(14만원)를 지원했다. 또 죽왕면변영회(회장 어명선)는 할머니를 위해 냉장고(50만원)를 지원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온정을 받은 박임순 할머니는 “큰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백옥식 시민기자

# “아직도 이런 사람이...”

## 고성경찰서, 영세상인 괴롭히는 40대 검거

술을 마시다 돈이 떨어지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돈을 뜯어내고, 칼을 들고 지역 주민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1시 거진읍에 거주하는 피의자 박모씨(45세)를 상습 주취폭력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거진재래시장에서 20여회에 걸쳐 상인들을 상대로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칼질을 한번 더하고 들어갔다 오면 된다”고 겁을 주면서 “술을 내나라,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육설과 난동을 부린 혐의다.

박씨는 또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전모씨(89세)가 상수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

고, 김모씨(72세)의 상가에 찾아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진열된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피의자 박씨는 부모사망 후 결혼도 하지 않고 즐곤 혼자 살아왔으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술을 마시다가 돈이 떨어지면 같은 마을 출신의 상인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돈을 빌리고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처럼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위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뿌리 뽑을 방침”이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